

DB 업계 소식

❖ 한국통신, 공공DB 집중 개발키로

한국통신(대표 조백제)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DB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올해말까지 15종의 공공DB를 개발하고 내년까지 총 30종의 공공DB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우선 미아찾기, 이산가족찾기, 농업정보, 생활법률정보, 문화재, 가정의례, 교통정보 등 7종의 공공DB를 오는 10월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근 한국PC통신(주)과 DB개발 및 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한국통신은 올해말까지 8개의 공공DB를 추가로 개발, 서비스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공공DB 개발분야 선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체육부, DB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

문화체육부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환경이 크게 변화돼 기존의 저작권법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아래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편집저작물 보호”를 새로 명시했다.

문화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DB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명백한 조항은 없었으나 편집저작물 보호조항에 의해 소재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전자정보장치에 의한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시행령 제정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94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데이콤, 전용회선 시간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

데이콤(대표 신윤식)은 디지털 전용회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시간별로 전용회선을 임대해 주는 시간제 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용회선 사용고객들은 데이터 통신량이 집중되는 특정시간에만 전용회선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된다. 데이콤은 빠르면 연내에 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체신부, CO-LAN 서비스요금 대폭인상

체신부는 민간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통신의 공중기업통신망인 CO-LAN 서비스요금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의 대폭인상은 지난 3월 전용회선 요금조정 이후 민간 VAN사업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CO-LAN서비스 요금을 전용회선 요금 인상분만큼 인상하기로 한 방침에 따

른 조치이다.

❖ 산업기술정보원

- 한국공개특허 DB · 한국공개실용 DB 온라인 서비스 개시

산업기술정보원(원장 박홍식)은 국내 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제작·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특허청의 협조로 국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 발생된 1983년 이후의 모든 공개특허 및 공개실용신안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1993년 7월 23일부터 외부 이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개특허의 경우 16만건, 공개실용의 경우 17만여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특히 1989년 이후 최근의 자료 약 20여만건에 대해서는 특허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구범위를 수록하고 있어 국내 재산권정보의 조사 및 이의 활용을 위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기술정보원은 향후 특허청과 협조하여 상표를 포함한 모든 국내 산업재산권정보를 DB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화상정보검색시스템 등을 구축중이며, 국내산업재산권정보를 영문DB화하여 대외 수출상품으로 특화해 나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문의 :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정보실 Tel. 962-6211).

- 한일 DB구축 국제세미나 개최

산업기술정보원(원장 박홍식)은 한일정보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9-30일 이틀간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

) 관계자와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일 DB구축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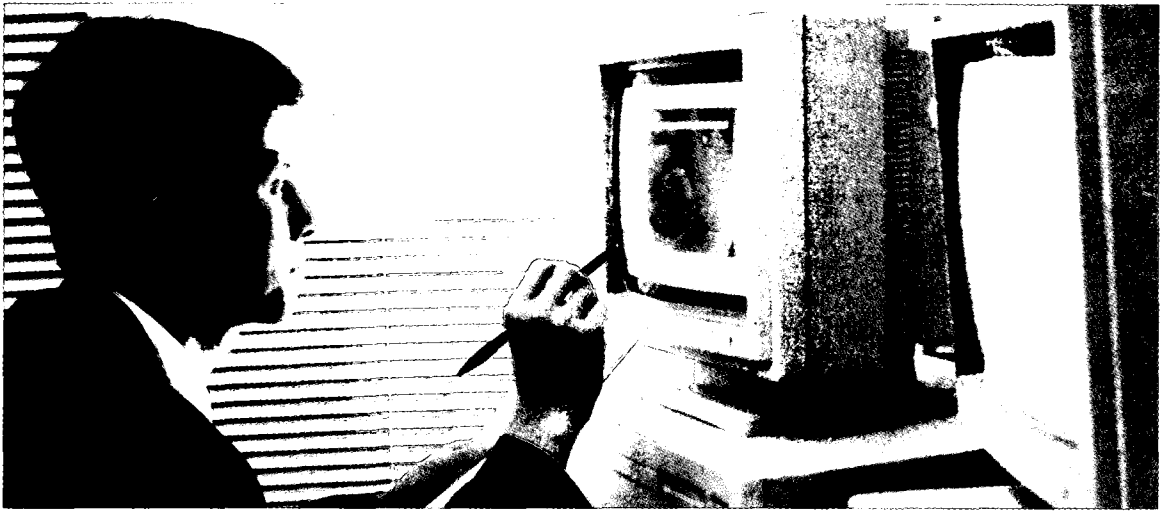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5개의 연구사례가 발표되었는데, 일본측에서는 지난 57년 과학기술청산하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일본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문헌정보종합DB를 구축한 JICST의 정보검색시스템인 JOIS의 DB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DB기술의 동향과 연구개발을 위한 DB구축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최근 과학기술 문헌DB 제작사례 발표와 아울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익철 연구원이 「광기술을 이용한 보고서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향후 DB기술의 발전방향에 관한 것으로, 대형컴퓨터에서 워크스테이션이나 PC로 중심이 바뀌는 다운사이징과 개방 분산처리형으로의 네트워크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화상, 음성, 문자가 동시표현되는 멀티미디어DB와 하이퍼텍스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INDITEL(인천지역 종합정보통신망) 개통

인천지역의 정보통신망인 인디텔(INDITEL)이 7월 19일 개통식을 갖고, 인천의 250만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디텔은 지난 88올림픽 이후 국내에서도 확대되기 시작한 한국PC통신(주) HiTEL, (주)데이콤의 천리안, 포스데이타(주)의 POS-Serve 등과 같은 성격의 정보망으로,



인천관련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민, 기관, 기업체에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정보망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개통된 인디텔은 인천직할시, 인천시 교육청, 인천상공회의소, 새얼문화재단, 경기은행, 인천일보, 인하대 등 인천의 대표적 기관들이 대거 참여, 지역관련 정보의 보유량 및 내용면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PC통신 전문업체들이 민원관련정보 서비스 “붐”

포스데이타(주)가 지난달부터 총무처가 구축한 행정종합정보 서비스를 자사의 POS-Serve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이어 데이콤, 한국PC통신 등 PC통신 전문업체들이 7월부터 민원관련 정보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하고 있다.

한국PC통신(대표 남궁석)은 6월 29일 성북구청에서 내무부, 체신부, 서울시청 및 서울시 22개 구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텔”을 통해 성북구청 민원서류 발

급서비스 시연회를 갖고 7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한국PC통신은 성북구청에 이어 마포구청의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구청 관계자들과 협의중이다.

데이콤(대표 신운식) 역시 한국법률자료서비스(주)와 IP(정보제공자) 계약을 체결해 정부의 각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민원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정보와 민원행정처리 안내정보 등을 천리안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적산DB연구회, 건설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유수의 건설업체 전문가들이 토목공사 견적용 DB를 구축하기 위해 올초 구성한 적산DB연구회(회장 오연주)는 그동안 각 건설회사별로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오던 토목공사 견적을 빠른 시일내에 표준화시키고 이를 DB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산DB연구회는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전문

분야별로 관련기술 및 견적내역에 관한 노하우를 PC통신망을 통해 수집하는 한편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원자재, 노무, 장비 등을 종류별로 세분화해 10자리수로 코드화하는 등 DB구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삼성전자, 윈도우용 비디오텍스
에뮬레이터 개발**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데이콤의 천리안이나 한국PC통신의 하이텔 가입자를 중심으로 비디오텍스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비디오텍스 서비스에 온라인 접속할 수 있는 통신용 에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개발한 비디오텍스용 에뮬레이터 "STEP-VTX/W"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3.1에서 운용되는 제품으로 비디오텍스 규격인 NAPLPS를 지원하며 VT-220모드와 VT-382모드도 지원한다.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정보 전산화
활기**

농어촌진흥공사는 국산 주전산기 타이컴을 도입, 기존의 자료와 내무부로 부터 토지정보를 제공받아 모두 DB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진공은 이에 따라 오는 3/4분기까지는 주전산기 도입을 완료하는 한편 올연말까지 3개도, 6개 직할시의 농지정보를 추가로 입력, 자체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 정보의 대부분을 DB화하는 한편 당초 목표대로 내년말까지는 누락분에 대해서도 내무부 자료를 이용, 모두 DB화할 방침이다.

농진공은 그동안 28억원을 투입, 6개도의 농지정보를 DB화하고 변동자료 관리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등 총 3백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등의 작업을 완료했는데 내년말까지는 약 22억원을 추가로 투자, 전국 농지정보를 모두 DB화하고 84개 군지부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장규모 성장**

컴퓨터 사용환경의 중심이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으로 이전됨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RDBMS)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라클코리아, 인포믹스코리아, 한국MJL, 포스데이터등 국내의 RDBMS 업체들은 지난 상반기중에 모두 16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반기 매출총액은 전년도 국내 RDBMS 시장규모인 199억원의 80% 정도에 해당하며 올 상반기동안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 국내 RDBMS시장이 160%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 전 안 내

- 한국무역시장보(주) (대표 내창엽)
 옛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28-1 금창빌딩 7층
 (Tel : 02-632-7611)
- 옮긴곳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9
 일성빌딩 2층
 (Tel : 02-322-7611) 